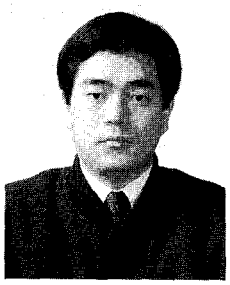
논 단

분업(分業)의 연구

1. 배 경
2. 의 의
3. 종 류
   1) 작업분업
   2) 전업분업
   3) 생산분업
   4) 작업분업
4. 효 과
   1) 장 점
   2) 단 점
5. 결 론



김 준 수

이일산업(주) 대표이사

1. 의 의

분업이란 손을 나눠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생산이나 작업의 온 과정을 혼자서 완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전문적 부문에 따라 나눠 맡아서 일을 완성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계획아래 노동을 분담하여 협동적·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이 협업(協業:cooperation)인데 이는 분업과는 다르다.

2. 배 경

오늘날 생산능률의 증대는 분업(分業:division of labor)에 의한 협업화(協業化)와 기계화(機械化:mechanization)에 의한 능률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스미스(A. Smith:1723~1790)가 *《국부론(國富論)》에서 예시한 〈핀〉 제조에 있어 능률의 증대는 분업적 협업화에 의한 효과이며, 오늘날 〈핀〉제조에 있어 능률의 증대는 기계화 또는 자동화(自動化:automation)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분업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분업이 노동생산성(勞動生產性:labor productivity)을 증진하는 원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1인의 노동자가 핀을 단독으로 만들어 내려면 1일에 한개도 완성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것을 18개의 부분생산과정으로 나누고 10인의 노동자가 분업적으로 작업할 때에는 1일에 48,000개 즉 1인당 평균 4,8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분업에 의한 노동생산 능률의 증진은 오늘날 경제질서의 특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스미스는 분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이유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었다.

1) 노동자의 기술의 향상
2)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일로 옮겨갈 때에 상실되는 시간의 절약
3) 노동자의 발명에 의한 기계의 응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개개의 노동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서로가 연관된 통일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K. marx)의 협업설은 이점에서 스미스를 보족(補足)하는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한 작업의 한 부면(部面)에 종사하는 노동은 다른 부면에 종사하는 노동이 있으니까 성립된다는 것이며, 이리하여 모든 부면의 노동이 합쳐서 하나의 작업을 완성케 하는 과정은 개개의 노동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협업이지만 작업 전체에서 볼 때에는 곧 분업이 된다는 것이다. 즉 분업은 반드시 협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3. 종 류

이러한 분업은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직업(職業)분업

이것은 가족 내지 씨족경제가 붕괴된 후 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분리·독립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농업·공업·상업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전업(專業)분업

각 개 직업의 세분화(細分化)에 의한 전문적인 분업을 말한다.

3) 생산(生産)분업

전문분업을 더욱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면포제조업이란 한 생산단위에서 방공(紡工)·직공·표백공 등이다.

4) 작업(作業)분업

종래에 단독의 노동자가 하던 일을 각종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노동자가 그 하나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과

분업은 그 효과에 있어 노동생산성을 뚜렷이 증진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는 동일한 전문작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므로 숙련과 기교가 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노동이나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노동력의 지출이 절약되며, 또한 동작이 자동화되는 경지에 이르른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반복으로 말미암아 동작이 율동화(律動化)됨에 이르는데, 그 결과 숙련과 기교과 증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2) 분업하는 노동자는 단순한 특정작업을 반복하는 결과로서 노동수단이 단순화 하고 개선되어 그에 관한 적응이나 응용이 촉진된다.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생산과정의 수행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특정된 작업에 적합하도록 도구나 기계와 같은 노동수단이 특정화하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기원을 살펴보면 분업적인 노동자가 특정작업을 하는 제조(製造:manufacture)단계의 도구에서 부터 발달한 것이므로, 말하자면 그것은 분업의 소산이라 말할 수 있다. 이리하여 노동수단이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한 노동방법등도 개선되는데 그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분업은 노동자가 담당하는 작업을 단순화하고 또한 전문화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다. 사람이 노동을 할 때에 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대상의 위치나 형태를 눈으로 보고, 냉온이나 요철(凹凸)을 촉각으로 알아내며 작업시에 잡음을 주의하는 등, 제기관(諸器官)을 동원하여 일정한 심신의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적지 않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맡아보는 작업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때 그때에 알맞는 태세로 바꾸어야 하므로 그 작업이 중도에서 지연되고,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비생산적으로 투입되거나 허비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수단의 종류나 배치를 다시하고 작업장소를 옮기게 된다면 더욱 많은 시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업을 실시하는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시간이 절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업의 이점을 들었으니 다음은 분업의 단점을 열거하여 보기로 하겠다.

1) 분업노동자는 특정된 노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부분 노동자 이므로 노동기관(勞動器官)이 편파적으로 발달하여 정신적·육체적 위축이나 기형(畸形)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여러가지 직업병의 유발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미 19세기에 영·미간에 있어서 분업으로 말미암은 각종의 직업병이 발생하여 문제되었던 사실(史實)도 있는 것이다. 하물며 기계화와 전문화가 더욱 촉진된 오늘에 있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다.

2) 노동력이 일면적으로 발달한 결과, 다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노동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직업전환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노동은 자본에 예속되는 경향이 커진다. 이와 같이 되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3) 분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신적 노동 즉 기획적노동(企劃的勞動)과 육체적 노동 즉 작업적 노동(作業的勞動)이 확연히 분리되고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생산에 있어서 조금도 주도권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단순한 생산도구의 주인공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도 역시 분업의 폐단으로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4) 분업은 각 작업의 성질과 내용을 단순화하여 성년남자의 숙련공에 대하여 비숙련공·반숙련공·부녀자·미성년 노동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불되는 노임액은 절감되고 이윤율은 증대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으나, 그 반면에 노동자의 복지문제등 노동에 관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초래하였다.

5. 결 론

분업이 근대 생산제도에 도입된 이래 대량 생산과 이에 따른 대량소비단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등 근대 생산체제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반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적대의 괴리를 넓혀 위화감을 조성하는등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사이에 제반조건에 관한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이 발생하

는 등 그 폐단 역시 적지 않았다.

이제 분업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소비자보호주의(Consumerism) 아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상적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일사불란한 조화속에서 경쟁력있는 품질높은 상품을 제조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註〕 1. 국부론(國富論)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스미스가 저술한 경제학서로, 원명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부(富)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고전 경제학 이론의 대표적 저술이다. 1776년에 간행되었다.

2. 자본론(資本論)

마르크스(K. marx)가 지은 경제학서로, 원명은 "Das Kapital"이다.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노동력의 상품화를 기축(基軸)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해명한 책이다. 제 2·3권은 마르크스의 사후(死後) 그의 구상을 좇아 엥겔스가 유고(遺稿)를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1867~1894년 사이에 간행되었고, 전 3권으로 되어있다. 전안

오 헨리 O. Henry 1862~1910

미국의 소설가,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William Sydney Porter), 노스캐롤라이너(North Carolina)주 출생, 1898년 은행원으로서 횡금(行金)소비로 3년간의 감옥생활을 보내는 사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1902년 이후는 New York에서 《월드(World)》지등에 기고를 하여 인기를 얻었으나, 남작(濫作)과 음주로 건강을 헤치어 사망하였다. 그의 단편은 하트(F. B. Harte) 또는 모파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부드러운 문체에 어휘가 풍부하나, 사건의 종말에 있어서 줄거리가 급전환 한다.

작품에는 《20년후》 《순경과 찬미가》 《마지막잎새(Last Leaf)》 《마기(Magi)의 선물》, 작품집으로는 남미의 이야기인 《캐비지와 왕(Cabbages and Kings)》, 뉴욕의 이야기인 《4백만달러》 《도시의 목소리》 《서부의 혼》등 약 13권 270여편에 달한다.

社 告

품질혁신 결의대회 개최 안내

전기용품 제조업체 경영자의 품질의식과 기업윤리를 제고시키고 고품질의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품질경영 확산으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전한 제품의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코자 다음과 같이 전기용품 제조업체 품질혁신결의대회를 개최 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1993년 12월 8일
2.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TEL 316-3616, 3417)
3. 참가대상 :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체 대표